

“현장서 쓸 수 있는 카드”... KIA가 주목한 ‘서건창 활용법’

팀내 2루수 백업·유망주들 조력자 역할 기대
심재학 단장 “서건창의 마음가짐, 와 닿았다”

프로야구 베테랑 내야수 서건창(35)이 KIA 타이거즈가 내린 손을 잡았다. KIA는 서건창의 활용도를 주목했다. KIA는 지난 15일 서건창과 총액 1억2000만원(연봉 5000만원·옵션 7000만원)에 계약했다고 발표했다. 2008년 LG 트윈스에 육성선수로 입단한 뒤 이듬해 방출당한 서건창은 군 복무를 마친 후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히어로즈)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서건창은 넥센에서 야구 인생의 꽃을 피웠다. 2012년 신인왕을 차지했고, 2014시즌 타율 0.370 안타 201개를 기록하며 정규 시즌 최우수선수(MVP)에 등극했다. KBO리그 역사상 단일 시즌에 200개 이상의 안타를 생산

한 선수는 서건창이 유일하다. 하지만 2021년 키움에서 LG로 트레이드된 후 하향세를 탔다. 2022년 부상 여파로 고전하며 77경기 타율 0.224 2홈런 18타점에 그쳤고, 지난 시즌에는 44경기 타율 0.200 12타점으로 부진했다. 2023시즌 뒤 LG에 방출을 요청한 서건창은 새 팀을 불색했다. 친정팀 키움으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기도 했으나 최종적으로 KIA와의 동행을 택했다. 서건창의 포지션인 2루에는 김선빈이 버티고 있다. 하지만 김선빈은 지난해 잔부상 탓에 25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서건창이 김선빈의 백업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심재학 KIA 단장은 최근 뉴시스와 통화

서 서건창 영입에 관해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카드를 만들려 했다. 주전 2루수 김선빈이 있지만, 백업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김선빈이 빠졌을 때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경험이 풍부한 서건창의 합류로 얻을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팀 내 유망한 야수들이 성장하는 데 서건창이 조력자가 돼 줄 것으로 판단했다. 심 단장은 “젊은 선수들이 성장하고 있다. 서건창이 우리 팀에 와서 어린 후배들에게 플레이코치 같은 역할도 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에서 초중고를 모두 졸업한 서건창은 고향으로 돌아왔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는 KIA 유니폼을 입고 부활을 노린다. 올 시즌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그 어느 때보다 남다르다. 심 단장은 “지난 2년간 성적이 떨어진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몸 상태가 좋고, 팀에 친분이 있는 선수들과 코치들이 있어서 적응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제대로 해보



KIA 타이거즈는 지난 15일 서건창과 총액 1억2000만원(연봉 5000만원·옵션 7000만원)에 계약했다고 발표했다. (사진=KIA 타이거즈 제공)

겠다는 서건창의 마음가짐이 마음에 와 닿았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미드필더만 쏘킵 골 넣었다...이제는 공격수들도 터져줘야

바레인전서 황인범·이강인 골맛
공격수인 조규성·손흥민 등 침묵
우승 위해선 공격수들 득점해야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조별 리그 E조 첫 경기였던 바레인전에서 침묵한 클린스만호 공격진들이 2차전 요르단과의 경기에서는 골 맛을 봐야 한다.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이 이끄는 남자 축구 대표팀은 오는 20일 오후 8시30분 카타르 도하의 알투마마 스타디움에서 요르단과 아시안컵 E조 2차전을 치른다. 이날 경기는 16강 조기 확정을 다투는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1차전에서 말레이시아를 4-0으로 꺾으며 조 1위가 된 요르단을 꺾는다면 3차전을 보다 여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 한국은 E조에서 한국 다음으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이 높은 바레인(86위)을 꺾는 만큼, 요르단(87위)과 말레이시아(130위)도 어렵지 않게 물리칠 것으로 보인다. 결과뿐 아니라, 승리로 가는 과정도 중요하다. 클린스만호는 이번 대회를 통해 지난 1960년 제2회 대회 이후 64년 만에 우승을 노린다. 정상까지 오르기 위해선 수비는 탄탄해야 하고, 공격은 골을 잘 넣는 기분을 잘해야 한다. 이에 1차전 경기에서 다소 불안했던 수비도 문제가 있었지만, 침묵한 공격진 역시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바레인전은 전부 미드필더들이 득점했다. 선제골을 기록한 황인범(스베즈다)은 전형적인 허리 자원이다. 멀티골로 팀에 승리를 안긴 이강인(파리 생제르맹)도 새도 스트라이커 등 공격수로 필 수는 있지만, 이날 경기에는 2선 자원으로 뛰었다. 최전방 ‘전문 공격수’로 분류할 수 있는 조규성(미트윌란)과 손흥민(토트넘)은 이날 침묵했



지난 15일 (현지시각) 카타르 도하 자심 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E조 조별리그 1차전 대한민국과 바레인의 경기, 후반 이강인이 추가골을 넣은 뒤 조규성, 황인범과 기뻐하고 있다.

다.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전부 영점이 정확하지 않았다. 조규성은 전반 30분 왼쪽 측면에서 이재성(마인츠)이 넘겨준 패스를 왼발 슈팅까지 연결했으나 하늘로 향하고 말았다. 침착성이 다소 아쉬운 장면이었다. 왼쪽 날개로 선발 출격해 경기 중 이동으로 조규성과 함께 전방을 책임졌던 손흥민은 조규성이 빠진 후반 27분부터는 원톱으로 뛰었다. 3선 지역까지 내려와 플레이메이킹(공격 전개)도 함께 했으나, 마무리에 조금 더 무게를 뒀다. 손흥민도 결정적인 기회를 맞았다. 후반 41분 이강인이 내어준 스루패스를 손흥민이 뛰어가 받았다. 이강인의 날카로운 패스 및 시야, 손흥민의 뛰어난 침투 능력이 조화를 이뤘다. 그렇게 손흥민은 골키퍼와 단독 찬스에서 오른쪽 골문 하단을 노리고 오른발 감아차기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대 옆으로 벗어나고 말았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는 비슷한 상황에서 골을 기록했으나 이날은 정확도가 아쉬웠다. 토너먼트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는 ‘우승 후보’인 이란, 호주, 일본 등과 경기할 때는 이런 찬스에서 결정을 지어줘야 우승까지 닿을 수 있다. 공격진에 특점이 쏠리지 않고 다양한 포지션에서 골이 나오는 건 장점일 수 있으나, 정작 공격진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아직 약체들과의 조별리그가 두 경기 남아 있다. 이 경기들을 통해 조규성과 손흥민 뿐 아니라 정우영(슈투트가르트), 오현규(셀틱) 등 다른 공격 자원들도 빠르게 골 감각을 찾는 것이 클린스만호의 새 과제로 떠올랐다.

김하성, 美매체 선정 예비 FA 6위... “샌디에이고는 잡고 싶을 것”

알론소·골드슈미트보다 순위 앞서...1위 소도

2024시즌을 끝으로 미국 메이저리그(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4년 계약이 종료되는 김하성(29)이 2025년 프리에이전트(FA·자유계약선수) 순위 6위에 올랐다. 미국 매체 CBS스포츠는 17일(한국시간) 2024시즌이 끝난 뒤 FA가 되는 선수들의 순위를 매겼다. 김하성은 3년 연속 홈런 35개 이상을 때려낸 피트 알론소(뉴욕 메츠), 2022년 내셔널리그 최우수선수 골 골드슈미트(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3차례 사이영상을 수상한 저스틴 벨런더(휴스턴 애스트로스) 등을 제치고 6위에 이름을 올렸다. 2021시즌을 앞두고 샌디에이고와 4년 2800

만 달러(약 376억원) 계약을 맺었던 김하성은 올 시즌이 끝난 뒤 FA 시장에 나설 수 있다. 2025년에 구단과 상호 옵션이 있지만, 몸값이 폭등한 김하성이 FA 권리 행사를 미룰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난해 김하성은 152경기에 출전해 타율 0.260 17홈런 60타점 38도루로 맹활약했고, 포지션별 최고 수비수에게 부여하는 골드글러브를 수상하며 가치가 급상승했다. 재정 문제로 울겨를 몸집을 줄이고 있는 샌디에이고는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김하성을 트레이드 대상으로 분류한 상황이다. 미국 현지 매체들은 김하성이 필요한 팀으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마이애미 말린스, 피츠버



그 파이리츠 등을 꼽은 바 있다. 하지만 CBS스포츠는 샌디에이고와 김하성의 연장 계약 가능성을 언급했다. 매체는 “A.J.프렐러 샌디에이고 단장이 김하성에게 2025시즌 상황된 조건을 제시하고 계약 기간을 더 늘리는 연장 계약에 나설지 궁금하다”며 “프렐러 단장은 김하성을 샌디에이고에 붙잡아 두고 싶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로배구 여자부 페퍼저축은행 선수들. (사진=KOVO 제공)

페퍼저축은행, 16연패 수렁 빠져 한 번 더 지면 팀 최다 연패 타이

프로배구 여자부 페퍼저축은행이 16연패 수렁에 빠졌다. 팀의 한 시즌 최다 17연패 기록도 코앞으로 다가왔다. 페퍼저축은행은 16일 김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3-2024 V-리그 여자부 한국도로공사와 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0-3(22-25 16-25 21-25)으로 졌다. 어느덧 16연패다. 지난해 11월 10일 GS칼텍스전에서 시즌 2승째를 신고한 페퍼저축은행은 이후 두 달이 넘도록 승리를 추가하지 못하고 있다. 오는 19일 현대건설전에서도 패한다면 2021~2022시즌, 2022~2023시즌에 한 차례씩 기록한 팀 최다 17연패 타이 기록 불명예까지 쓰게 된다. 일찌감치 최하위로 내려앉은 페퍼저축은행의 시즌 성적은 2승21패 승점 7이다. 시즌이 후반부로 접어들어 시점에서 아직 승점 10점도 채우지 못한 팀은 페퍼저축은행 뿐이다. 6위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승리로 승점 25(8승16패)가 됐다. 승리에 목이 마른 페퍼저축은행은 이날 한

국도로공사를 맞아 연패 탈출을 노렸지만 이날에도 뜻을 이루지 못했다. 1세트는 점전으로 펼쳐졌다. 세트 막판까지 한국도로공사를 근소한 차이로 꺾으며 괴롭혔다. 하지만 동점을 만들고도 역전까지 일궈내진 못했다. 18~20에서 아스민의 블로킹과 상대 범실로 균형을 일군 페퍼저축은행은 상대 부키리치의 오픈 공격에 이은 서브 에이스에 당하며 다시 리드를 내줬다. 21~23에선 타나차의 연속 킥오픈에 세트 포인트를 헌납했다. 22~24에선 필립스의 서브가 벗어나며 고개를 떨궜다. 아쉽게 1세트를 내준 페퍼저축은행은 2세트에선 별다른 힘을 쓰지 못했다. 초반부터 7~14로 끝러간 페퍼저축은행은 반격을 하지 못하고 고전했다. 1, 2세를 빼앗긴 페퍼저축은행은 3세트까지 내주고 또 한 번의 패배를 받아들였다. 13~15까지 따라갔던 페퍼저축은행은 부키리치에 연이어 당하고, 범실까지 기록하며 연속 6실점하며 승기를 그대로 넘겨줬다.

女배구 흥국생명 아본단자 감독, 엘레나 거취 고민

프로배구 여자부 흥국생명이 외국인 선수 엘레나 트라체노비치 교체 여부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출신인 27세 아포지 스파이커(오른쪽 공격수) 엘레나는 2021~2022 프로배구 여자부 KGC인삼공사(현 정관장)에 입단하며 한국 무대를 밟았다. 2022~2023시즌을 앞두고 외국인 선수 트라 이어아웃에서 흥국생명의 선택을 받은 엘레나는 김연경과 함께 팀 공격을 이끌며 준우승이라는 성과를 냈다. 재계약에 성공한 그는 2023~2024시즌에도

흥국생명 공격을 이끌 것으로 기대됐지만 시즌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기복이 심해지고 있다. 지난해에 비해 확연히 떨어진 위력에 흥국생명 팬들까지 화가 났다. 일부 팬들은 부진한 엘레나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흥국생명 본사에서 트럭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실제로 마르첼로 아본단자 흥국생명 감독이 엘레나 거취를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명간에 엘레나를 놓고 아본단자 감독이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